Shakespeare의 <*Macbeth*>(1605-6)

1. 작품의 출전과 그 배경:

Raphael Holinshed의 The Chronicles에 나오는 맥베스의 이야기: 여기서는 맥베스와 뱅코가 유약한 던컨왕을 보좌하는 충신으로 묘사되었는데, 결국은 던컨왕을 시해하는 공범으로서 맥베스가 왕이 되는데 뱅코가 기여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1603년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통합영국의 제임스 1세로 등극했는데, 그는 평소에도 마법과 주술에 관심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을 어루만져 병마를 퇴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뱅코를 국왕 시해의 공범에서 맥베스와는 다른 길을 가는 인물로 그린 셰익스피어의 의도는 아마도 스튜어드 왕가의 후손인 그를 범죄에 가담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리고 굳이 그를 공범화 시키지 않더라도 맥베스의 동인만으로도 극을 이끌러 갈 수 있다는 작가의 의도일 것이다.

2. 첫 장면의 중요성:

도덕적 우주에서의 부도덕한 인간에 대한 탐구, 맥베스의 부도덕한 야심이 어떻게 질서를 뒤흔들고, 또 그것이 회복되는가를 보여주는 작품.

마녀들의 등장: 어둠이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그들의 말, fair is foul, foul is fair, 이 말은 정상적인 세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가치관의 전도를 표현한 말로써 이어올 갈등과 무질서를 예견한다.

3. 극의 연출자이자 배우로서의 맥베스:

이 극은 전체가 주인공 맥베스의 극적 구상과 그 실현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는 극의 주인공이자 자신의 상상력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이 극의 연출가이

다.

극 제목이 가지는 함의: The Tragedy of *Macbeth* or The *Tragedy* of Macbeth

셰익스피어의 비극들 속에는 항상 주인공을 파멸로 이끄는 악의 힘이 존재한다. 즉 자신의 파멸에 대해 주인공이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지만, 항상 비극적 결과를 야기하는 중대한 사건을 교사하는 악한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극의 경우는 외적 악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맥베스 자신이 악을 범하는 장본인으로서, 소위 악의 화신인 적대자가 주인공이다.(protagonist= antagonist) ----> 그의 이중의 역할을 극 전체에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4. 맥베스는 타고난 악인인가?

흔히들 그이 성격상 악의를 고발하는 언급으로 4막 3장의 맥더프와 맬컴의 대화를 인용한다. 조국 스코틀랜드가 맥베스의 폭정으로 신음하고 있음을 개탄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것은 주인공이 이미 왕을 시해하고 난 다음의 문제이므로 정황상 그의 악의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흔히 간과되는 장면이지만, 헤케이트가 자신의 허락이 없이 교우한 마녀들을 꾸짖는 장면의 언급(3. 5);

<게다가 더욱 고약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은 간악하고 화 잘내는 변덕쟁이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 자는 다른 놈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의 마술을 사랑한 자이다>

----> 마녀들과 맥베스와 연관지어 인간의 본성을 해석한 콜리지나, 맥베스의 마음 속에 이미 시해의도가 있었다고 본 로시터나 브래들리의 견해는 결국 그의 원천적인 악의를 대변해 준다.

그리고 당시 스코틀랜드의 왕위는 반드시 혈통계승만이 아니고 제후들의 합의에 의한 승계도 가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한다면, 외침과 국내의 반란을 야기한 무능한 덩컨왕과 비교하여, 이를 전쟁의 여신의 남편(Bellona's bridegroon 1.2)답게 진압한 성공한 장군으로서의 맥베스에게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리라는 개연성

을 얻을 수 있다.

맥베스의 첫 대사, <내 이렇게 험하고도 화창한 날은 본적이 없소(so foul and fair a day I have not seen. 1.3)> 이 말은 얼마나 마녀들의 첫 대사와 닮아있나?

5. 맥베스와 마녀들과의 만남:

마녀들은 맥베스의 무의식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맥베스 속에 갇혀 있는 욕망을 상징한다. 그러나 심리적 차원에서의 무의식의 발현은 곧 예술적 차원에서는 상상력이 될 수 있다. 마녀들은 연출가이자 배우인 맥베스의 상상력이다.

마녀들은 맥베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들은 맥베스의 행위의 동인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앞일에 대한 사건을 나열했을 뿐이고, 행동에 대한 고지는 없었다. 욕망은 의식을 팽창시킨다. 모든 사건은 전적으로 맥베스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소산이다. <그래 가자. 그리고 행하자. 2.1>, <일을 벌일 시간. 1.7>, <저질러 진 일은 저질러 진 일. 3.2>

마녀들 대하는 맥베스와 뱅코의 태도: 지금 당장 왕이 될 사람과 비록 자신에 대해서는 엊금이 없으나 자신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왕위를 누릴 것이라는 뱅코에 대한 마녀들의 언급 ----> 이 말이 시해를 유발한 동인이라면 과연 누가 더 시해를 의도해야 할까?

그러나 뱅코는 마녀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이성의 눈으로 그들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지만 악마들은 사람을 유혹하여 해치려고 이따금 진실을 말하는 경우가 있지요. 말하자면 사소한 일에는 정멀을 말하여 환심을 사 두고, 중대한 일에는 우리를 배반하는 것이지요. 1.3>

반면 맥베스의 경우는 이성적 판단을 저버린 태도(reason prisoner 1.3)로 그들을 대한다. <이봐, 기다려, 모호한 말만 하지말고 좀 더 말 해줘. 1.3>, <조금만 더 기다려 줄 것이지! 1.3>

이런 면에서 맥베스는 자신의 호기심과 욕구가 발동하기 시작했고, 죄의 원인은 마녀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 마녀는 단지 상상력을 제공하는 차원.

6. 마녀들이 맥베스에게 한 말을 정리하면:

1) 그가 글라미스의 영주가 된다 <---- 이말은 아버지 시넬의 죽음으로 오는 당연한 상속의 개념이므로 예언이 아니다.

2) 코오더의 영주가 된다 <----여기서 부터는 예언이지만, 이미 이 사항은 왕으로부터 자신의 무공에 대한 댓가로 인가가 난 상태이고, 다만 시간차로 자신이 알지 못했을 뿐이다.

3) 왕이 된다 <--- 이미 현재 적법한 왕이 있는 상태이므로 이 예언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 즉 상속도 아니고 그의 댓가도 아닌 그 어떤일 을 벌여야 하는 입장

<왕을 주제로 하는 기막힌 연극의 좋은 서곡이다. 감사하고 여러분. (방백) 이 신통한 유혹은 흉조도 길조도 아니다. 1.3>

그리고 그 방법은 살인이었다. <내 생각에 살인은 단지 공상이건만 이렇게 나의 단아한 마음을 뒤흔들고, 억측이 분별을 짓누르듯 질식시키고, 보이는 것은 단지 이렇듯 헛것들 뿐인가. 1.3>

그러나 그 자신도 시간의 유혹을 견딜만한 여지가 있었다.

<만일 운명이 나를 왕이 되게 할 것이면 내게 서두르지 않더라도 운명이 내게 왕관을 씌워 주리라. 1.3>

그러나 그는 서둘렀고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다. 서두름 속에 과오가 생긴다. <세상과 시간을 속이기(To beguile the time, Look like the time. 1.5)>---> 세상은 관객을 시간은 극의 흐름을 의미한다.

7. 맥베스부인의 역할:

편지를 전해 받은 그녀는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남편과 같은 부당한 행위(play false. 1.5)를 통한 부당한 꿈(wrongly win. 1.5)을 꾼다. 그리고 그녀의 성급함은 맥베스와 같이 시간의 흐름을 역행한다.

<당신의 편지는 저에게 앞에 놓인 무지한 현재를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 벌써 미래

의 영광을 느끼고 있답니다. 1.5>
로스와 앵거스가 맥베스를 왕에게 모시러 가는 장면 Let's toward te King(1.5)

8. 맥베스로 하여금 시간을 역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던컨왕이 맬컴을 왕위계승자로 지목한 사건이다. 이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당장 시도해야하는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한다.<컴벌랜드공이라! 이건 하나의 계단이지. 내가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뛰어넘어야 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내 길을 가로막고 있거든. 별들아. 그 빛을 감추어 나의 검고 깊은 욕망을 보지 못하게 하여다오. 1.4>

그런데 세자들을 제거해야하는 상황에서 그의 예상과는 달리 왕자들은 탈출하고, 이 사건은 자신의 연출가로서의 상황에 결함을 안겨준다. 사실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감추어야 하는 연출자/배우로서의 결함은 자신의 노출이다. 그는 사실 처음부터 주변인들에게 노출된 존재였다.
1) 마녀를 만났을 때, 뱅코는 그를 보고, <장군, 왜 그리 놀라시오.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도 왜 그리 두려워하는 거요. 1.3>.
2) 그리고 탈출을 서두르는 두 황자의 대화(2.3).---> 맥베스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외국으로 도피하는 장면

9. 자신의 왕권찬탈에 대한 죄의식과 더불어 항상 공존하는 위험성은 뱅코의 존재였다. 그야 말로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로서, 전적으로 그 이유는 마녀의 언급, 즉 뱅코의 후손이 왕권을 이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맹코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3.1).
그리고 이런 의식적 부담은 마녀들을 통해 뱅코와 여러 왕들의 유령을 보는 사건으로 발전한다. 물론 여기서 여러 왕들이란 맥베스 자신이 무수히 저질러야 하는 살인의 흔적이자. 뱅코의 후예로서 장차 스코틀랜드를 이끌 왕들의 모습니다. 맥베스는 자신의 불길한 의식이 현실화 될 것을 의식하면서, 이제는 그는 자신이 시간에 얽매어 따라가야만 하는 신세가 된다. <시간이여. 너는 내가 하려는 무서운 일을 선수쳤구나. 4.1>----> 자신의 불운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주변 사람들

을 모두 살해하는 일. 자신의 역동성과 자의성이 커져간다.----> 맥베스부인의 역할이 사라짐. 자동으로 굴러가는 기계.

10. 그러나 마녀들로부터 받은 마지막 희망/ 불패의 조건;

1)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를 이길 수 없다(4.1)

2) 버넘숲이 던시네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자신은 안전하다(4.1)

그러나 이 상황은 자신의 상상력에 의해 기만당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한다.

1)의 조건의 경우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자연분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연분만이 아니라도 인간은 태어날 수 있다. --->맥터프의 경우

2)의 조건, 숲의 이동은 전술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위장전술

결과적으로 맥베스는 현실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조건을 초월적이고, 상상적 차원으로 이해한 것이고, 이것이 그를 파멸로 인도하는 직접적인 조건이 되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과도한 상상력에 기만당한 것이다.

Macbeth: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Creeps in this petty pace from day to day,

To the last syllable of recorded time;

And all our yesterdays have lighted fools

The way to dusty death. Out, out, brief candle!

Life's but a walking shadow, a poor player,

That struts and frets his hour upon the stage,

And then is heard no more. It is a tale

Told by an idiot, full of sound and fury,

Signifying nothing. (Macbeth Act 5, scene 5, 19–28)